

1994년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와 부문별 구성비 변화

정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건강의 증진, 회복,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제화와 서비스의 소비 행위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되어 왔다.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의 도입과 확대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 변동추세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합리적인 보건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부문별 의료비 지출에 관한 기초통계는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행한 추계 방법에 따라 1994년도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를 추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1994년도 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문별 비중의 변화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1994년도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지출 현황

〈표 1〉은 1994년도 국민의료비 및 기존의 연구에서 행한 1993년까지의 추계 결과를 나타낸다. 1994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경상지출은 14조 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90년 가격기준 실질 국민의료비의 경우에는 약 7.7% 증가한 10조 8,786 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4.6%로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료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의료비의 경우 1994년 현재 경상지출이 약 31만 6천원, 실질 지출이 약 22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의 경상 국민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으로, 그리고 민간부문은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지출 중 중앙정부 부문의 의료비 지출 추계는 아래에 열거한 항목들을 합한 액수로 구해진다. 단, 보건복지부, 내무부 및 국방부, 경찰청 소속 병원과 국립대학부속 병원, 국립의료원에서의 병원수입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시켰다.

- 1) 재정경제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재정통계』에서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 중 보건항목
- 2)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중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의료보호항목
- 3)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의료보험통계연보』에서 의료보험관련 지출중 중앙정부에서 지출하는 국고부담금과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부담금 및 공·교의료보험의 정부부담금
- 4)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중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보

1994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경상지출은 14조 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 가격기준 실질 국민의료비의 경우에는 약 7.7% 증가한 10조 8,786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건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지출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통계연보』의 재정부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의 기능적 분류에서 보건항목의 지출총액으로 구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통계연보』의 지출액에서 국고부담금을 뺀 액수이다. 지역의료보험의 국가부담금과 공·교의료보험의 정부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하였다.

공공부문의 1994년도 의료비 지출의 추계 결과 중앙정부에서 1조 5,307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 2,629억원, 그리고 의료보험부문에서 3조 3,382억원으로 추계되어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의료비 중 43.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경우 가계의 의료비 지출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중 의료보건항목의 액수에서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통계연보』에 나오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그리고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출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민간비영리단체 목적별 최종소비지

표 1. 국민의료비 자원별 지출현황

(단위: 10억원)

연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총계	GDP 대비 비율(%)	1인당 국민의료비 (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의료 보험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1972	7.4	9.6	-	89.7	4.8	111.5	2.65	3,328
1973	7.2	10.9	-	114.4	5.7	138.2	2.55	4,052
1974	10.1	13.2	-	179.3	8.8	211.4	2.76	6,094
1975	12.0	19.0	-	228.6	11.9	271.5	2.64	7,695
1976	21.3	25.0	-	290.6	13.9	350.8	2.49	9,786
1977	49.2	40.0	4.8	358.4	15.5	467.9	2.59	12,850
1978	81.4	66.6	24.3	511.4	22.3	706.0	2.89	19,097
1979	88.3	94.8	60.1	643.2	34.6	921.0	2.93	24,538
1980	114.8	117.8	119.3	828.3	43.6	1,223.8	3.21	32,101
1981	161.8	148.3	167.1	1,073.7	65.4	1,616.3	3.39	41,740
1982	215.4	176.8	265.8	1,351.4	96.2	2,105.6	3.85	53,542
1983	251.8	202.9	378.2	1,668.2	122.7	2,623.8	4.09	65,742
1984	249.6	202.7	496.6	1,947.5	161.5	3,057.9	4.15	75,679
1985	291.7	253.7	582.9	2,265.1	202.8	3,596.2	4.38	88,130
1986	359.8	276.6	555.1	2,658.3	222.2	4,072.0	4.25	98,873
1987	547.7	364.1	658.8	3,078.7	253.2	4,902.5	4.37	117,920
1988	707.2	462.5	889.7	3,440.7	306.1	5,806.2	4.36	138,326
1989	915.4	545.3	1,243.3	3,870.9	362.6	6,937.5	4.65	163,697
1990	1,148.9	601.3	1,801.1	4,333.0	433.7	8,318.0	4.63	194,032
1991	1,539.1	590.7	1,901.7	5,325.0	502.8	9,859.3	4.57	227,864
1992	1,285.2	831.2	2,384.1	5,848.7	578.7	10,927.9	4.55	250,276
1993	1,425.8	1,076.1	2,865.3	6,371.1	657.7	12,396.0	4.64	281,369
1994	1,530.7	1,262.9	3,338.2	7,183.2	748.8	14,063.8	4.61	316,374

자료: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재정경제원, 『한국의 재정통계』, 『결산개요』, 각년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대한민국 정부, 『세입세출결산서』, 각년도.

출 중 보건의료비항목의 금액으로 구해진다. 그 결과 1994년도 가계의 의료비 지출은 7조 1,83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는 7,488억원을 지출해 민간부문의 비중은 56.40%를 차지하고 있다.

3. 부문별 비중의 변화 추이

연평균 증가율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의료보험부문 지출이 61.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부문이 27.6%의 증가율을 보였고 민간부문의 증가율은 22.8%로 의료보험부문 지출의 상승률이 타부문의 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이후 1991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의 확대 효과가 소진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과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 실시의 확대에 따른 의료보험 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의 경우 1.0%에 지나지 않던 의료보험부문의 비중이 공공 의료보험의 도입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적용이 확대된 다음해인 1980년에는 9.8%로 증가하였고, 농·어촌 지역의료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보험이 실시되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8년에는 15.3%, 의료보험의 인구가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된 다음해인 1990년에는 21.6%를 넘어서 1994년 현재 약 2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정부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94년에 19.7%로 최근 8년간 20%내외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8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실시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60%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 실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이 비록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양적 팽창을 이룩하기는 했으나 높은 본인부담률과 광범위한 비급여의 존재로 질적 향상이 수반되지 않았고 낮은 수가로 인한 공급자의 유인수요 등에 의한 결과라는 기존의 연구 분석이 있다.

4. 결 언

우리나라의 1994년도 국민의료비를 재

원별로 추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동 추세를 기존의 연구에서 행한 추계와 결합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4년도의 전체 경상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약 4.6%인 14조 638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56.4%인 7조 9,320억원, 공공부문의 경우는 약 43.6%인 6조 1,31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의 실시와 확대에 의한 의료보험부문 지출의 높은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비중은 추계기간 동안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추계는 공식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 및 재원별 비중의 변동 추세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의 구조 및 그 변화양상의 파악을 위해서는 의료비의 총액과 재원별 현황 뿐만 아니라 지출형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자료원의 미비로 인해 지출의 용도별 파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재원과 지출용도별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보건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주어진 자원의 제약하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민의료비계정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국민의료비 부문별 구성

표 2. 국민의료비 부문별 총액 및 구성비

(단위: 10억원)

연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합 계
	정부부문	의료보험	소 계		
1972	17.00 (15.25)		17.00 (15.25)	94.50 (84.75)	111.50 (100.00)
1973	18.10 (13.10)		18.10 (13.10)	120.10 (86.90)	138.20 (100.00)
1974	23.30 (11.02)		23.30 (11.02)	188.10 (88.98)	211.40 (100.00)
1975	31.00 (11.42)		31.00 (11.42)	240.50 (88.58)	271.50 (100.00)
1976	46.30 (13.20)		46.30 (13.20)	304.50 (86.80)	350.80 (100.00)
1977	89.20 (19.06)	4.80 (1.03)	94.00 (20.09)	373.90 (79.91)	467.90 (100.00)
1978	148.00 (20.96)	24.30 (3.44)	172.30 (24.41)	533.70 (75.59)	706.00 (100.00)
1979	183.10 (19.88)	60.10 (6.53)	243.20 (26.41)	677.80 (73.59)	921.00 (100.00)
1980	232.60 (19.01)	119.30 (9.75)	351.90 (28.75)	871.90 (71.25)	1,223.80 (100.00)
1981	310.10 (19.19)	167.10 (10.34)	477.20 (29.52)	1,139.10 (70.48)	1,616.30 (100.00)
1982	392.20 (18.63)	265.80 (12.62)	658.00 (31.25)	1,447.60 (68.75)	2,105.60 (100.00)
1983	454.70 (17.33)	378.20 (14.41)	832.90 (31.74)	1,790.90 (68.26)	2,623.80 (100.00)
1984	452.30 (14.79)	496.60 (16.24)	948.90 (31.03)	2,109.00 (68.97)	3,057.90 (100.00)
1985	545.40 (15.17)	582.90 (16.21)	1,128.30 (31.37)	2,467.90 (68.63)	3,596.20 (100.00)
1986	636.40 (15.63)	555.10 (13.63)	1,191.50 (29.26)	2,880.50 (70.74)	4,072.00 (100.00)
1987	911.80 (18.60)	658.80 (13.44)	1,570.60 (32.04)	3,331.90 (67.96)	4,902.50 (100.00)
1988	1,169.70 (20.15)	889.70 (15.32)	2,059.40 (35.47)	3,746.80 (64.53)	5,806.20 (100.00)
1989	1,460.70 (21.06)	1,243.30 (17.92)	2,704.00 (38.98)	4,233.50 (61.02)	6,937.50 (100.00)
1990	1,750.20 (21.04)	1,801.10 (21.65)	3,551.30 (42.69)	4,766.70 (57.31)	8,318.00 (100.00)
1991	2,129.80 (21.60)	1,901.70 (19.29)	4,031.50 (40.89)	5,827.80 (59.11)	9,859.30 (100.00)
1992	2,116.40 (19.37)	2,384.10 (21.82)	4,500.50 (41.18)	6,427.40 (58.82)	10,927.90 (100.00)
1993	2,501.90 (20.18)	2,865.30 (23.11)	5,367.20 (43.30)	7,028.80 (56.70)	12,396.00 (100.00)
1994	2,793.61 (19.86)	3,338.20 (23.74)	6,131.81 (43.60)	7,932.00 (56.40)	14,063.81 (100.00)

주: () 부문별 구성비
 자료: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